

## [ 국제·종합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행위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카나 학살’ 지구촌 분노

안보리 ‘충격과 비통’ 의장성명  
이 ‘48시간 중단’ 어기고 또 공습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카나 마을 공습으로 어린이 등 60여명이 숨져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 48시간 동안 공습을 중단하기로 합의 따라 중동사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콘돌리자赖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휴전과 항구적인 화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카나마을 공격에 “극심한 충격과 비통함”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48시간 공습중단을 선언한 직후인 31일 레바논 동부지역에 또 다시 공습을 가했다고 레바논 관리들이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콘돌리



자赖이스 장관 및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과의 토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의 48시간 공습 중단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 대변인인 미리 에이신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군의 카나 마을 폭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아미르 폐레츠 국방장관도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참사에 대해 “무서운 사건”이었다며 이스라엘에 자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예루살렘 AFP·로이터=연합뉴스

## 김정일 “부시 당선돼서 남한 담방 안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1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에게 자신이 남한 담방을 하지 않은 것은 미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당선된 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담방 효과에 대한 예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30일 밤간된 장 전 주석의 외교 실록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 장쩌민 외교방문 실록(爲了世界更美好 : 江澤民出訪紀實)’에 실려 있다.

이 실록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3~4일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로서 두 번째 방북한 장 주석과 회담한 김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

령의 평양 방문 후 자신이 남한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남한에 가게 되면 세계를 향해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밝힐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 대선 이후 국제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해 실제 방문 효과가 어떨지에 대한 예상이 좋지 않았다고 자신이 약속했던 남한 담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2001년 9월 3일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1년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연합뉴스

### ◇ 광주 제1선거구 (동·북구)



장휘국

▲55(충북단양)  
▲광주고, 광주 교대, 조선대학

학원 사학과 석사

▲초·중·고교 교사 28년, 조선대 강사, 전교조 광주지부장, 현 광주시교육위원회 부장



박기훈

▲34(담양)  
▲담양농고, 전남대 사학과, 조선대학교대학원 역사학 석사

▲담양중·광주일고·전대사대 부중 교사, 대촌중 고감, 광주시교육연수원 장학사



전원범

▲62(고창)  
▲고창고, 서울 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세종대 대학원 문학 박사

▲영광초교·동신여고 교사, 동강대 교수, 문광부 간행물 심의 위원

### ◇ 광주 제2선거구 (서·남·광산구)



이승연

▲53(신안)  
▲광주고(3회), 광주대 행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광주 서부교육청 관리과장, 광주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순천대 사무국장, 세종고 교장

### ◇ 광주 제3선거구 (나주·함평·무안·장성·담양·영광)



나승옥

▲63(함평)  
▲목포사범, 목포교대

▲전남도 여수교육청 교육장,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 광주·전남 교육위원 당선자

### 광주·전남 교육위원 당선자



한이춘

▲61(순천)  
▲순천농립고, 건국대, 건국대

행정대학원

▲3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부의장, 전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

### ◇ 전남 제2선거구 (여수·광양·구례·곡성)



윤봉근

▲50(광주)  
▲광주진흥고, 전남대 법대, 전

남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조선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

▲미국 뉴욕뉴스 교육정책논설 위원, 제4대 광주시교육위원

### ◇ 전남 제4선거구 (목포·해남·진도·완도·영암·강진·신안)



민병홍

▲46(화순)  
▲광주기계공

고, 전남대, 전

남대 행정대학원

▲제3·4대 전남도교육위원회, 한

국학원총연합회 전남도지회부회장



서견용

▲66(신안)  
▲목포고, 서울 대학교 사범대

학, 전남대교육대학원

▲전 해남교육청 교육장, 현 도

교육위원



서기남

▲62(강진)  
▲광주고, 광주 교대, 조선대 교

육대학원

▲전남도교육장

▲여수교육청 교육장



오병인

▲62(부안)  
▲목포고, 광주 교육대학, 조선

대 교육대학원

▲전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전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 ‘교육의 質’ 거센 요구…대폭 물갈이

### 교육위원 선거 결과 분석

### 광주 무능력 심판…7명 중 5명 낙선

### 전남 교육전문직 부상, 전교조 퇴조

현직 프리미엄이 우세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은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다급한 요구앞에 철저히 빗나갔다.

이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동안 기존 일부 교육위원들의 보여준 무능력과 구태에 대해 심

관을 가지고 급변하는 교육여건 속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변화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는 2선구에서 3대 교육 위 후반기 의장까지 지난 김희중씨와 교육계에서 고참 대접을 받

던 오은열씨가 탈락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은 광주시 부교육감 출신들이 대거 당선됐으며 제 3대 교육위원회였던 학원장 출신 한이춘씨도 복귀했다. 김명환위원은 전국 최다선 위원인 5선의 기록을 세웠다.

지난 4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김희중씨에게 불과 11표 차이로 낙선했던 서제의씨는 4년간의 와신상담 끝에 이번 선거에서 281표를 얻어 4위를 차지, 224표를 얻은 김희중씨를 57표차로 누르고 설득했다.

전남에서는 교육전문가의 부상

과 전교조의 퇴조가 눈에 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여수교육장을 지난 나승옥씨, 역시 여수교육장을 지난 서기남씨, 목포교육장 출신 오병인씨, 초등 교장출신 채귀석씨 등 교육전문직 출신들이 대거 당선됐으며 제 3대 교육위원회였던 학원장 출신 한이춘씨도 복귀했다. 김명환위원은 전국 최다선 위원인 5선의 기록을 세웠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광주에서는 2명 모두 재선에 성공했으나 전남에서는 모두 고배를 마셔 전남지역 교육 수요의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족의 권장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편기유니트  
*Aufpass 있습니다*

www.aufpass.com  
02-544-2400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www.ulfong-dong.com  
02-544-2400